

“지방 권한 이양·재정 지원 통해 지방시대 실현”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尹 “저출생 극복에 전력” 당부 “외국인·유학생 경제활동 지원”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며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충남 내포신도시 소재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우등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 대응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지방 주도의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지금 우리 청년들은 출산은 고사하고 결혼도 꿈꾸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두 달 출생아 수가 좀 늘었지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을 강조했다.

현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 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양육,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지방에 대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면서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일손 부족과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산업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문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의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직접 받는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코리안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 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 및 종합토론 등이 진행됐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국가 주도 다목적댐 건설을” 정부 건의

신규 수자원 확보·지원사업 시급 안정적 용수공급·홍수 예방 전력

전남도는 안정적 수자원 공급과 홍수 예방을 위해 환경부가 추진하는 신규 댐(리모델링) 건설 10개소 중 전남지역 국가 주도 댐 1개소와 5개 시군이 신청한 7개소를 반영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민이 사용하는 생·공용수는 주암

·장흥·수어·평립댐 4개소에서 1일 144만 톤의 88%인 127만 톤을 공급받고 있다. 대부분 섬진강수계 주암댐계통의 상수원을 활용하고 그 중 55%가 여수·광양산단에 공업용수로 공급되고 있다.

국가수도정비계획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2035년 1일 26만 톤의 생·공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22만 톤이 공업용수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수자원 확보가 시급하다.

특히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구례 하천제방 범람, 2022년 281일 동안 이어진 극한가뭄, 곧바로 이어진 2023년 장마철 역대 최고 강수량 기록 등 최근 3년 동안 지독한 기후 양극화를 겪었다.

실제 지난해 극한의 가뭄으로 주암댐 저수율이 역대 최저인 20%를 기록함에 따라 전남도는 가뭄대책 논의 당시 국가 주도로 신규 댐을 건설해 줄 것을 환경부

에 건의한 바 있다.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하수재이용, 해수담수화, 지하저류지 등 대체수자원 개발도 중요하지만 극한 가뭄과 장마철 홍수 대비를 위한 항구적 대책으로 신규댐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추진하는 신규 댐 건설계획 발표를 지지하고 있다.

다만 신규 댐 건설은 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고, 무엇보다 주민 수용성이 전제돼야 하므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지속

적인 소통과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전남도는 환경부와 상호 협력해 댐 건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명칭한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신규댐(리모델링) 건설을 통해 안정적 용수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댐 주변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댐 건설·운영 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국가차원의 환경영향조사가 함께 이뤄지도록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